

# 빛고을 도심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 채운다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 4일 광파르 ACC·5·18민주광장 일원 나흘간 개최**  
**전 세계 댄서 1천300명 치열한 '배틀' K-POP 댄스 경연 신설...행사 풍성**

6월 광주가 가슴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 중력을 거스르는 몸짓, 젊음의 에너지로 거리를 가득 채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4-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스트리트댄스 축제인 '2026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를 연다.

'스트리트컬처 페스타'는 국내외 정상급 댄서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치열한 배틀과 새롭게 도입된 케이팝(K-POP) 댄스, 시민들이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통해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 여름 축제이자 세계적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청년 댄서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스트리트댄스 브랜드로 성장한 '배틀 라인업(Battle Line Up)'은 올해 참가 접수 시작 2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배틀라인업'은 오는 4일부터 나흘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힙합·왁킹·팝핑·락킹·오픈스타일 등 총 5개 장르에서 전 세계 실력과 댄서 1천300여명이 자존심을 걸고 짜릿한 1대1 배틀을 선보인다.

5일에는 미래의 스트리트댄스 무대를 이끌어갈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키즈&유스 배틀'이 열려 세계적 차세대 댄서들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거리의 열기를 나누기 위해 5·18민주광장의 야의 경연 프로그램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 운영한다.

5일에는 최근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컬처(K-Culture) 열풍을 반영한 'K-POP 댄스 경연'이 새롭게 신설돼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6일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구성된 37개 댄스 팀이 한계를 뛰어넘는 화려한 단체 퍼포먼스 경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광주시에 오는 4-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스트리트댄스 축제인 '2026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 행사 모습. <광주시 제공>

심사위원과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프랑스 '저스트데뷰' 등 세계적인 댄스 배틀을 휩쓴 해외 정상급 스트리트 댄서들이 심사를 맡고 배

테랑 MC 두락이 사회를 진행한다. 또 K-POP 댄스와 팀 퍼포먼스 경연에는 리헤이, 진우, 러브 란, 단젤, 아카넨 등 대중에게도

친숙한 유명 댄서들이 참여해 날카로운 심사와 함께 축하 공연으로 무대의 품격을 높인다.

무대 밖 5·18민주광장 일원에서도 힙한 거리 문화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래피티 작업과 초크아트, 스트리트댄서 스타일링 등 누구나 자유롭게 거리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광주의 매력을 알리는 관광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미식 관광 콘텐츠도 함께 마련된다.

광주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ACC와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형 세계적 문화축제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문화 확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광주시 동구, ACC, KBS 광주방송총국, 빛고을댄서스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스트리트컬처 페스타는 전 세계 청년들과 댄서들이 광주에 모여 함께 즐기는 세계적 문화축제"라며 "광주의 문화적 역동성과 청년 에너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세계적 여름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해상교량 달리며 희망 전한 '기부런' 성료

여수 낭도 일원 10km 코스 1천여명 질주  
참가비 50% 지역 기부 '관광+나눔' 주목

전남도는 31일 "전남 여수 낭도 일원에서 열린 'Run for Islands(여수 기부런)'이 전국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섬 지역 기부와 숙박·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상교량을 달리며 섬에 기부하는 공익형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전국에서 1천여명의 러너와 관광객이 참가해 낭도-조발도를 잇는 10km 해상교량 구간을 달렸다. 참가자들은 남해안 바다와 섬 풍경이 어우러진 이색 러닝을 즐겼다. 경찰·소방·해경 등 100여명이 투입돼 전면 차량 통제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참가비의 50%를 여수 낭도와 개도·금오도 지역에 기부해 관광과 나눔을 결합한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에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도 제공됐다.

행사 개최식은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로트 가수 안성훈의 축하공연과 기



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행사 참가자 상당수는 여수 숙박시설과 주요 명소를 이용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참가한 한 러너는 "바다와 섬을 바라보며 해상교량 위를 달리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며 "가족과 함께 여행과 기부

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이번 기부런은 해상교량과 섬 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체류 관광 콘텐츠이자 관광과 나눔을 결합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섬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특화 콘텐츠를 확대해 다시 찾고 오려 머무는 전남 관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전남도, 행정통합 과제 적기 이행 점검

인수위 보고사항 중심 대응방안 정리

전남도는 지난 29일 도청 새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주요 통합과제 추진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점검 회의인 만큼 인수위원회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쟁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주요 통합과제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과제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6월 한 달 동안 7월1일 통합특례시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시스템 개편 등으로 잠시 중단되는 민원 시스템과 그에 따른 대체 수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TV, 자막방송,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

##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수행 단체 6곳 선정

광주시는 31일 "최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수행 단체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광주형 대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기획 공모' 부문과 5개 자치구별 특성에 맞춘 '특화 공모'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기획 공모 부문은 참신아이에스지협동조합·동문마을기후환경연립공동체 이음·두루모아문화공유공동체·새광주시민방송 등 4개 단체 네트워킹인 '안전넷 여친넷'을 선정했다.

'안전넷 여친넷'은 신안동 등 기후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주도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리포트 양성, 라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 공모 부문에는 ▲동구 '진절환 페미'의 동네책방 거점 성평등 인문학 강좌 ▲서구 '새나기온'의 성평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남구 '남구 미리네'의 마을여성 기자단 육성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의 가족 합창단을 통한 성평등 양육환경 조성 ▲광산구 '어룡동주민자치회'의 생애자원 활용 여성 생애해설사 양성 사업 등 5건을 선정했다. /변은진 기자



##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